

## 창세기 1장과 이집트 메리카레의 교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김준(명지대)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창세기 1장과 그보다 약 1500년 이전에 “신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한 이집트의 메리카레 교훈을 비교 연구하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와 이러한 개념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은 구약학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인간의 본질과 의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표현이다.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 표현이 사용된 창세기 본문, 그리고 형상과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צֶלְמַת** (“형상”)과 **מְאוּמָּת** (“모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339)

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를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병행 본문들을 통해 연구하였다. 특히 신의 형상이 사람에게 적용된 일곱 개의 메소포타미아 본문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sup>1</sup> 이 본문들은 대부분 기원전 7세기 신앗수르 본문이며, 가장 오래된 본문은 기원전 13세기 중기 앗수르 본문인 투쿨티-니누르타 서사시(Tukulti-Ninurta Epic)이다. 메소포타미아 병행 본문들에서 신의 형상은 대부분 왕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의를 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제사장에게 적용된 예외적 사례가 한 차례 발견된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중왕조 시기부터 약 열여덟 명의 파라오들이 신의 형상으로 언급되었다(기원전 1640년~196년).<sup>2</sup>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형상은 왕에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에게 사용되었다. 왕이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잘 알려진 제왕 이데올로기로 왕은 신적 기원을 갖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 신과 같은 권위와 특성을 대변함을 보여준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왕과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개인에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반면 구약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 1:27) 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고대 근동에서 왕과 제사장에게 한정적으로 사용된 신의 형상을 일반 대중에게 적용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원역사로 구분되는 창세기 1-11장 안의 세 본문에 나타나는데 모두 특정한 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인류에게 사용한다(창 1:26-28; 5:1-3; 9:6). 19세기 말부터 다수의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창세기 본문들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창세기를 최종

1 J. 리처드 미들턴,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성기문 옮김), (서울: SFC, 2009), 141-156.

2 윗글, 138-140.

편집한 제사장 학파(P)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제사장 학파는 “신의 형상”과 관련된 메소포타미아의 제왕 이데올로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선언은 제사장 학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사장 학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중받는 존재이자 신적 대리인으로서 역할 하는 존재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을 대중에게 적용한 것은 창세기가 처음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 제1중간기에 기록된 메리카레의 교훈은 인간이 신의 몸에서 나온 신의 “형상들(*smw*)”이라고 언급한다. 메리카레의 교훈에 나타난 표현은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록된 부분(130-133행)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병행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병행 주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는 메리카레의 교훈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sup>3</sup> 그 주된 이유는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이 역사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메리카레의 교훈은 제1중간기(주전 22-21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신의 형상”은 파라오에게만 적용되었다.<sup>4</sup>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메리카레의 교훈

3 윗글, 126-132.

4 이집트의 지혜문학 중 신왕조 18왕조 시기에 기록된 아니의 교훈(The Instruction of Ani)에도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논의가 있다. Miriam Lichthei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Volume II: The New Kingdo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이후에 이집트에서 주요한 인간 창조 개념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역사는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이 왕에게만 적용되던 시기이기에 메리카레의 교훈에 나타난 신의 형상 개념이 구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sup>5</sup> 또한 제사장 학파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시기가 포로기 이후라면 메리카레의 교훈과 약 1500년 이상의 역사적 간격이 있기에 제사장 학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연구에서 메리카레의 교훈은 언급되곤 하지만 그 관련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두 본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6</sup>

메리카레의 교훈은 고대 근동에서 창세기 1장보다 앞서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문서이며 창세기 1장과 유사한 창조 기사가 묘사된 문서로 창세기 1장과 비교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sup>7</sup> 본 연구는 이집트의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사용한 신의

---

135-146. R. J. Williams, "Scribal Training in Ancient Egyp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92 (1972), 221.

5 미들턴, 윗글, 131.

6 창세기 1장과 이집트의 다양한 창조 신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창세기 1장과 메리카레의 교훈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Gordon H. Johnston, "Genesis 1 and Ancient Egyptian Creation Myths", *Bibliotheca Sacra* 165 (2008), 178-194; James E. Atwell, "An Egyptian Source for Genesis 1",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1 (2000), 441-477; John D. Currid, "An Examination of the Egyptian Background of the Genesis Cosmogony", *Biblische Zeitschrift* 35 (1991), 18-40. 창세기 1장과 메리카레의 교훈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미들턴, 윗글, 126-141; J. K. Hoffmeier,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15 (1983), 39-49.

7 참조. 기원전 13세기에 기록된 이집트의 아니의 교훈(The Instruction of Any)에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snnw*)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지만(B. 23. 7-13), 이 표현을 신의 형상보다는 신의 동료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Nili Shupak, "Straightening the Crooked Stick: The Boundaries of Education in the Ancient Egyptian Wisdom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의미가 제사장 학파에 영향을 주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으려는 연구는 아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단 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려는 연구도 아니다. 본 연구는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제사장 학파가 메리카레의 교훈의 영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을 인지하며, 어떤 이유로 두 본문이 창조에 대해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표현하는지, 그 의미를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이 출현했던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정황에 관하여 연구한다. 둘째, 메리카레의 교훈 130-133행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문학적 병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를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의 문맥 가운데 연구하고, 고대근동의 문화에 나타난 병행 주제 및 본문과 비교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 표현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본문에서 역사적, 종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음을 제안한다.

---

Tradition”, *MAARAV* 21.1-2 (2014), 251-270.

## 2.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의 역사적 배경

### 1) 메리카레의 교훈의 역사적 배경

메리카레의 교훈은 “그의 아들, 메리카레”를 위해 작성했다는 서문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메리카레(기원전 약 2075-2040년)는 고대 이집트 제1중간기(기원전 약 2181-2025년) 헤라클레오폴리스 왕조인 제10왕조의 파라오이다. 메리카레의 교훈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제1중간기는 고왕국 시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붕괴된 후 지방 통치자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경쟁하던 혼돈의 시기였다.<sup>8</sup> 헤라클레오폴리스 가문은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집트 하부에 제9-10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이 시기는 테베를 중심으로 이집트 상부에서 강성해지던 인테프 가문, 그리고 지방의 세력들과 경쟁하던 시기였다.<sup>9</sup>

제1중간기 이전의 고왕국 시대(기원전 약 2686-2181년) 이집트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시기는 피라미드의 시대라고 명명될 정도로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 등 대형 피라미드들을 건축하였다.<sup>10</sup>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와 웅장한 신전, 국경지대의 군사 원정은 고왕국 시기의 발전된 건축 기

---

8 메리카레의 교훈이 작성된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메리카레의 교훈을 제1중간기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하고 기록했다는 점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William W. Hallo, William Kelly Simpson,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y* (2nd ed.: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8), 232.

9 제1중간기의 이집트 제9왕조와 제10왕조는 이집트 하부의 헤라클레오폴리스(Herakleopolis)를 수도로 했기에 헤라클레오폴리스 왕조로 불리기도 한다. 헤라클레오폴리스 왕조는 이집트 상부의 테베를 수도로 했던 멘투호테프 2세(Mentuhotep II)의 제11왕조에 의해 몰락하며 제1중간기가 막을 내린다.

10 Nigel Strudwick, “The Old Kingdom and First Intermediate Period”, Ian Shaw and Elizabeth Bloxam (eds.), *The Oxford Handbook of Egypt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620.

술뿐 아니라 거대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1</sup>

이러한 고왕국의 멸망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sup>12</sup> 첫째, 고왕국의 쇠퇴는 페피(Pepi) II세 이후 후계자들의 통치 기간이 짧은 것과 관련되었을 것이다.<sup>13</sup> 이 기간 왕실의 건축 업적은 현저히 줄었으며 왕들의 재위 기간이 연속적으로 짧았다는 사실은 왕권이 불안정했음을 의미한다.<sup>14</sup> 둘째,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왕국 말기와 제1중간기의 무덤에서 발견된 다수의 문서는 당대에 나일강 수량의 낮아짐과 가뭄을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이 있다.<sup>15</sup> 셋째, 국가 소유의 토지가 “피라미드 제의, 신전, 장례 제의” 등의 재원 마련 및 임금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관에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고왕국 말기에 왕권은 점점 약화 되었고, 지방의 지도자들은 점차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왕국은 중앙 통제가 불가능하였고, 왕위는 기

---

11 윗글, 619-637; Kathryn A. Bard, *An Introduction to the Archaeology of Ancient Egypt* (2nd ed., West Sussex,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5), 178.

12 윌리엄 홀로(William Hollo)는 당시의 문학 자료에 묘사된 사회적 혼란과 혁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귀족 남성과 여성이 밭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하인들은 전 주인들의 재산을 누리는 상황이었다. 형제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했다. 피라미드와 묘지들이 약탈당하며 정부 관리들의 문서들은 거리에 던져졌다. 더 생동감 있는 기록들에서는 자연의 세계가 이 혼란과 유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나일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갔으며, 해가 가려졌다. 작물은 줄어들었으나 세금은 더 높아졌다.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묘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William W. Hollo, 윗글, 232-233.

13 Strudwick, 윗글, 621, 629.

14 페피 II세 이후 이어진 제7왕조와 제8왕조는 약 25년간 지속되었으며 “70일 동안 70명의 왕”이 있었다는 과장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Wilson,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105.

15 Strudwick, 윗글, 629.

16 Hollo, 윗글, 232; Bard, 윗글, 177-178.

원전 2170년경 헤라클레오폴리스의 통치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sup>17</sup> 마침내 고왕국은 몰락하고, 제1중간기가 시작되었다.

제1중간기는 오래된 가치와 질서의 균열을 딛고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였다.<sup>18</sup> 고왕국 시대는 신적으로 전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파라오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통치의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제1중간기 고왕국의 붕괴와 지방 통치자들의 경쟁은 “파라오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렸으며, 일반 백성이 파라오의 인간적인 실수를 인지할 수 있던 시기였다.<sup>19</sup> 월슨에 따르면, “고대 왕국의 탈중앙화로 왕의 권력은 약화되고 귀족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평등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다.”<sup>20</sup> 파라오의 권위는 흔들리는 반면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sup>21</sup>

이러한 사고는 사후 세계에 관한 생각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열망과 종교관을 기록한 장례 문서들은 이 시기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sup>22</sup> 고왕국 시대의 장례 문서는 파라오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오시리스와의 관계도 파라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 파라오는 살아 있을 때는 호루스와 동일시되었고, 죽어서는 오시리스와 동일시되었다.<sup>23</sup> 고왕국 시대의 장례 문서는 왕가와 관

---

17 Strudwick, “The Old Kingdom and First Intermediate Period”, 621.

18 John A. Wilson, “The Instruction for King Meri-Ka-Re”,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414.

19 Wilson,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108.

20 윗글, 115.

21 윗글, 116.

22 이동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와 영혼 이해”, 『중앙사론』 31 (2010), 197-227; Vladimir V. Zhdanov, “Study on the Question of Human Nature in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575 (2021), 144-148.

23 Bernard F. Batto, *In the Beginning: Essays on Creation Motif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런한 피라미드 벽과 석관에 기록한 피라미드 문서(Pyramid Texts)가 주류였다. 그러나 제1중간기에는 경제력 있는 귀족과 일반인도 개인의 목관 내부, 묘실 벽, 비문, 파피루스 등에 기록한 관 문서(Coffin Text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관 문서는 파라오 뿐 아니라 사망한 일반인도 오시리스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후 세계의 지위가 일반인에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sup>24</sup>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메리카레의 교훈의 배경이 되는 제1중간기의 헤라클레오폴리스 통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지양하는 동시에 지방의 세력과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왕국을 운영해야 했다.<sup>25</sup> 메리카레의 교훈은 군주로 하여금 신중한 정치와 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을 기록한다.<sup>26</sup>

## 2) 창세기 1장의 역사적 배경

창세기 1장의 작성 연대는 모세 시대부터, 포로기 이전, 포로기, 포로기 이후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윌키와 프레드릭스는 문서비평가들의 견해에 반대하며 모세가 창세기 1장과 오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sup>27</sup> 이들은 모세가 이집트 18왕조 말 혹은 19왕조 초(약 기원전 1400-1300년)에 파라오의 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창세기 1-11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접촉했다”

---

*Bibl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3), 21-23.

24 Zhdanov, 윗글, 144-145.

25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 『고대 이집트의 역사: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까지 1』 (김태경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20), 21-22.

26 William Kelly Simpson (ed.), *An Anthology of Stories, Instructions, Stelae, Autobiographies, and Poetry* (3rd ed.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152-153.

27 브루스 K.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4-36.

고 제안한다.<sup>28</sup> 윌키와 프레드릭스는 창세기 1-11장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의 병행에 대해서 언급하며 모세가 이러한 고대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창세기 1-11장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윌키와 프레드릭스의 주장은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가능한 추론이다. 다만, 이들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서도 이집트의 신화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들과의 관련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모세가 이집트 중왕국 18왕조 후반~19왕조 초기에 파라오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메리카레 교훈의 사본들이 18왕조 중후반에 발견된 것을 생각한다면,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메리카레 교훈의 창조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인간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다(참조. 시편 33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표현이 모세 시대 혹은 포로기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의 최종 편집 연대를 고려한다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종교적, 역사적 상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구약학자는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과 고대근동의 과거 전통에 기반하여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초기인 기원전 약 6세기 후반에 최종 편집되었다고 제안한다.<sup>29</sup> 이러한 근거의 이유는, 첫째, 언

28 윌키, 34-36.

29 Benjamin D. Sommer, *A Prophet Reads Scripture: Allusion in Isaiah 40-66*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142-143; Mark S. Smith, *The Priestly Vision of Genesis*

어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과 기원전 6세기의 중후반의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와 표현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sup>30</sup>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קִיָּן**(궁창)은 창세기 1장에 9회(창 1:6, 7\*3, 8, 14, 15, 17, 20), 에스겔에 5회(1:22, 23, 25, 26; 10:1), 시편에 2회(시 19:2; 150:1), 다니엘에 1회(단 12:3) 나타난다. **קִיָּן**은 창세기 1장과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에스겔 1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다니엘서와 시편의 **קִיָּן**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에스겔 1장은 **קִיָּן**과 함께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מִמְנֵהוּ**도 사용한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겔 1:26)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מִמְנֵהוּ**(“모양”)는 창세기 1장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창 1:26).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에스겔 1장의 하나님 현현의 묘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공통된 전통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1</sup>

둘째, 창세기 1장의 연대를 포로기로 추정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관심은 욥기(38-41), 시편(19:1-4; 104; 139:13-14), 제2이사야(40:28; 45:18), 예레미야(10:12; 32:17)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은 대부분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본문이다. 또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

*I* (Minneapolis: Fortress, 2010), 41;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322-326; Michael Fishbane,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T* 21, 151-167; Richard Elliott Friedman, “Torah (Pentateuch),” *Anchor Bible Dictionary* VI, 617; Suzanne Boorer, *The Vision of the Priestly Narrative: Its Genre and Hermeneutics of Time* (Atlanta: SBL Press, 2016), 503-505.

30 Batto, *In the Beginning*, 125.

31 윗글, 125.

일곱 번째 날에 안식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은 출애굽기(20:8-11; 31:12-17), 레위기(23:3; 25:1-55), 신명기(5:12-15) 등 오경 이외에는 제2이사야(56:1-8; 58:13-14), 예레미야(17:19-27), 에스겔(20:12-24), 느헤미야(13:14-22) 등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문헌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나타난다. 안식일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사회적 규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과 다양한 주제 및 모티프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문화 간 영향력이 기원전 7~6세기에 고대 근동으로부터 동부 지중해 연안,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문학적 생산과 문화 간 영향력이 목격되었다”고 지적한다.<sup>32</sup>

넷째, 창세기 1장이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이 제사장적 관점(P)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벨하우젠의 문서설이 제기된 19세기 이후 다수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이 포로기 이후 최종 편집된 제사장 학파의 언어 및 관심을 포함하는 P 문서로 보았다.<sup>33</sup> 창세기 1장은 언어와 표현에 있어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며, 질서와 균형을 강조한다. 또한 창세기 1장은 제사장 학파의 관심사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안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창세기 1장의 제사장 편집자 가설에 대한 비평적인 견해들이 있음에도, 창세기 1장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초기에 제사장 학파에 의해 최종 편집

32 Smith, *The Priestly Vision of Genesis 1*, 42; Donald B. Redford,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400.

33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3), 386-90; Herman Gunkel, *Genesis* (translated by Mark E. Biddle; Macon, GA: Mercer University 1997), 117; Martin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 (Trans. Bernhard W. Anderson; Atlanta: Scholars Press, 1981).

되었다는 가정을 유력하게 한다.

제사장 문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초기(기원전 520년 이전)에 새로운 공동체 형성, 토지의 복원 및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제사장적 관점에서 최종 편집되었다.<sup>34</sup> 국가의 멸망과 함께 백성들은 파괴와 죽음을 목도 하였고, 포로기를 겪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sup>35</sup> 종교와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 옛 유다의 영토는 황폐해졌고, 왕정 신학은 몰락했으며, 시온 신학은 무너졌다. 유다의 멸망은 정치, 사회, 종교,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유대인들은 포로기에 타민족의 문화와 이방 종교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기였다. 기존의 가치와 신학에 균열이 생기고 도전받으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유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웨 하나님의 통치를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우주적인 통치로 이해하였다. 이 시기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해가 한 축을 이루었으며, 예언자들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다.<sup>36</sup>

창세기 1장은 제사장적 비전의 서곡으로서 포로기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진 경험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묘사한다.<sup>37</sup> 스미스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성전을 파괴하고 왕족과 제사장들을 죽이거나 망명

---

34 Gershom Hepner, “Israelites Should Conquer Israel: The Hidden Polemic of the First Creation Narrative”, *RB* 113, 161-180; Boorer, 윗글, 102-103.

35 박기형,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의 사회경제적 정체”, 『구약논단』 30(1) (2010), 75-110.

36 질 미들마스, 『이스라엘의 무성전 시대』 (홍성혁 옮김), (서울: CLC, 2018).

37 베스트만은 창세기 1장이 기존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외부의 전통에 의존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향한 창조 이야기로 묘사되었다고 이해한다.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1-2.

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협적인 세계 앞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 ‘공허하고 아무 형태도 없는’(2절) 상태에서 질서를 창조하고자 했다. 창세기 1장이 나타내는 창조의 체계적인 구조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대비를 이루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사장적 감수성에 깊이 기반한 희망의 표현이었다.”<sup>38</sup> 제사장 학파는 포로기의 경험을 한 독자들에게 세계와 민족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sup>39</sup>

### 3.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메리카레의 교훈 130-133행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다수의 병행 주제를 포함한다. 주요한 병행 주제로는 ① 신의 천지창조, ② 태고적 혼돈의 물을 나눔(혹은 정복), ④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창조, ⑤ 신이 빛을 비추게 함, ⑥ 신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 ⑦ 신이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함을 포함한다. 그리고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지 않으나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다.

창세기 1장의 다양한 창조 주제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학에서도 발견되지만, 메리카레의 교훈의 130-133행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주제는 짧은 본문에서 매우 밀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에 대한 강조는 창세기 1장

38 Smith, 윗글, 90.

39 Boorer, 윗글, 206-217, 503-562.

메리카레의 교훈 (L. 130-133)	창세기 1장
신의 소 떼인 인간은 좋은 돌봄을 받는다. (L. 130-131)	
① 신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L. 131)	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② 그는 바다 괴물을 정복하셨다. (L. 131)	②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6; 참조. 시 74:13-14; 89:9-10)
③ 그는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게 하셨다. (L. 131-132)	③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④ 그들은 신의 형상으로, 신의 몸으로부터 나왔다. (L. 132)	④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참조. 창 1:26)
⑤ 신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빛을 비추셨다. (L. 132)	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3)
⑥ 그는 그들을 위해 식물과 소 떼를 만드셨고 (L. 133)	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창 1:11-12)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창 1:25)
⑦ 그들을 먹이기 위해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L. 133)	⑦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20-21)

과 메리카레의 교훈의 병행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시기적으로 늦은 창세기 1장이 메리카레의 교훈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차용했을 가능성을 논할 수 있지만 메리카레의 교훈의 영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주목할 점은 다양한 병행 주제가 두 본문 사이

www.kci.go.kr

에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창조 이야기의 의미가 문학적 구조를 통해 볼 때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 1) 메리카레의 교훈에 나타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이집트 제1중간기의 헤라클레오폴리스 통치 가문의 비전

메리카레의 교훈은 이집트 제1중간기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왕이 그의 아들 메리카레에게 혼란한 왕국을 잘 다스리기 위한 권면을 담고 있다. 이 교훈은 “그의 아들 메리카레”(L. 1)를 위한 교훈이라는 표제어로 시작한 후 다양한 종류의 권면을 포함한다. 그 권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0</sup> 1) 왕국을 향한 반란을 극복하는 방법(L. 1-31), 2) 신중하게 통치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언어 사용에 주의할 것, 지혜로운 자가 될 것,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것,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 것(L. 32-38), 3) 귀족을 존중하고 평민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L. 38-46), 4) 의롭게 통치하고 판결할 것(L. 46-56), 5) 군대 양성 및 편제(L. 57-63), 6) 종교적 의무 수행의 중요성(L. 63-67), 7) 국가의 영토 방위에 대한 권면과 왕의 업적에 대한 찬가(L. 67-109), 8) 신과 종교 의무에 대한 권면(L. 110-138), 9) 지금까지 언급한 왕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권면(L.138-144). 메리카레의 교훈의 마지막 부분은 이 교훈을 필사한 서기관 목록이 첨부되어있다(L.144-150). 요약하면 메리카레의 교훈은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면 관료와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고 왕은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권면한다. 또한 왕이 신과 종교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신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음을 권면한다.

---

40 메리카레의 교훈은 다양한 권면이 주제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언급되었던 주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언급되기도 하고, 서로 연관되지 않는 소주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본고에서 내용을 구분한 것은 어떤 주제가 본문에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 한정한다. 리히트하임의 구분은 다음을 참조하라. Lichtheim, 윗글, 98.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언급되는 부분은 신과 종교적 의무에 대한 권면(L. 110-138) 중 신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유념하여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나타난다(L. 130-138). 왕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안정된 국정 운영이라면, 종교적 이유는 신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언급되는 부분 중 130-133행은 창세기 1장과 내용상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단락은 사람이 신으로부터 좋은 돌봄을 받는다고 선포하며 시작한다.

신은 소 떼인 인간은 좋은 돌봄을 받는다. 신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는 바다 괴물을 정복하셨다. 그는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게 하셨다. 그들은 신의 형상으로, 신의 몸으로부터 나왔다. 신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빛을 비추셨다. 그는 그들을 위해 식물과 소 떼를 만드셨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다(L. 130-133).<sup>41</sup>

이 창조 이야기의 구조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 이야기의 중앙에 위치하며, 신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 목록이 창조된 사람을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되었다. 먼저 신이 사람을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바다 괴물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후 혼돈의 바다를 분리하여 장소를 만드는 묘사와 유사하다. 이어서 메리카레의 교훈은 사람이 신의 형상, 신의 몸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묘사한다. 그리고 인간 창조 이후에는 신이

41 본 메리카레의 교훈은 리히트하임의 번역을 따른 김광남의 번역이다. 존 H. 윌튼,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역사적 아담의 기원과 정체에 관한 논쟁』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75-76; 참조. Lichtheim, 윗글, 106.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빛을 비추고, 식물과 소 떼를 만들고,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들어 먹을거리로 주었다고 말한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그들[사람들]을 위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신이 사람들을 위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였음을 강조한다. 창조 이야기의 목적이 신에 의해 좋은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인간을 신의 소 떼에 비유하며 시작한다. 인간을 신의 소 떼에 비유하는 것은 이 단락의 문맥에서 볼 때 인간을 가족으로 폄하하기보다 신의 돌봄을 받는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집트 예언자 이푸베르(Ipuwer)는 왕을 “그의 백성의 목자”로서 “백성들의 목초지를 보살피고 그들을 생존”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것으로 표현한다.<sup>42</sup> 이로부터 추정한다면, 신의 소 떼라고 할 때 신은 목자로서 인류를 보살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sup>43</sup> 왕과 백성의 관계뿐 아니라 신과 인간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비유였다. 고대근동의 다양한 신의 호칭 및 칭호에는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목자의 칭호 혹은 비유가 사용된 신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두무지(탐무즈), 엔릴, 샤마쉬, 말дук,<sup>44</sup> 이집트의 오시리스,<sup>45</sup> 이스라엘의 하나님<sup>46</sup> 등이 포함된다. 티모시 라니아크(Timothy Laniak)

42 Wilson,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115.

43 데이빗 로턴(David Lorton)은 인간을 신의 소 떼에 비유한 것은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인간 창조시 인간의 평등에 관한 생각은 Coffin Text 1130과 the Great Hymn to Aton에도 나타나는 개념이다. David Lorton, “God’s Beneficent Creation: Coffin Texts Spell 1130,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and the Great Hymn to the Aton”,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20 (1993), 135.

44 Timothy S. Laniak,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Pastoral traditions and leadership in the Bible*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6), 58-61.

45 Sir Ernest Alfred Wallis Budge, *An Egyptian Hieroglyphic Dictionary* Vol. 2 (New York: Courier Dover, 1978), 87.

46 구약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다(시 23:1-6; 78:52; 79:13; 95:7; 100:3; 사 40:11; 겔 34:31).

의 견해처럼, “일반적으로 이 명칭은 인류의 통치자로서 신의 역할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인류에 대한 자비로운 관심을 강조한다.”<sup>47</sup>

본문은 인간이 신의 소 떼로서 좋은 돌봄을 받는다고 표현한 후 신의 모든 창조 행위를 인간을 위한 것으로 묘사한다. 신은 인간을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 괴물을 정복하고, 하늘에서 빛을 비춘다. 또한 신은 인간을 먹이기 위해 식물, 소 떼, 새들,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한다. 신의 피조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묘사한다. 창조기사의 초점은 신이 인간을 특별히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 이유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인간의 창조는 신과의 관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으며, “신의 몸으로부터” 창조하였다. 또한 신은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살 수 있게 하였다. 본문은 인간이 신의 형상, 신의 몸, 신의 호흡을 통해 창조되어 신과 매우 깊이 관계된 피조물이자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로 묘사한다. 제기되는 질문은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이다.

첫째,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이 파라오와 같이 신격화되거나 혹은 신성의 어떤 부분을 유비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의 형상으로 생각된 고대 이집트의 왕은 살아 있는 신의 현현으로 신격화되었으며, 신의 형상인 고대 근동의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권위와 역할을 위임받은 존재로 생각되었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이집트 문학에서 파라오를 신의 형상으로 표현한 문서들보다 오백 년 이상 앞선 본문이다.<sup>48</sup> 모든 인간이 신의 몸으로부터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

---

47 Laniak, 윗글, 58.

48 미들턴,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127.

었다는 생각은 고왕국 시대에는 없던 생각이었다. 메리카레의 교훈의 배경이 되는 시기인 제1중간기는 파라오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사후세계에 오시리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 시기였다. 대중이 죽음 후 오시리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생각이었다. 이 시기는 인간으로서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이 높게 평가받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인간이 신의 몸에서 나온 “신의 형상들(*smnw*)”이라는 표현은 파라오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신의 후손이라는 “대중화”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신의 형상인 파라오가 신의 현현으로 이해된 것처럼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 신과의 유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나타나는 본문(L. 130-138)은 이 표현을 통해 인간을 신격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인간이 왕과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왕은 특별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신은 그를 땅 위의 무수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만들었다”(L. 116). 왕과 일반 대중은 신의 형상이지만 신은 왕을 더 탁월하게 창조하였다.

둘째,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표현은 신의 좋은 돌봄을 받는 신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L. 130-138)은 신에 대한 종교와 윤리적 의무 이행을 왕에게 권면(L. 110-138)하는 부분의 마지막 단락에 위치한다. 신이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으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은 왕의 종교적, 윤리적 의무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49 Westermann, 윗글, 31.

다. 윌리엄 심슨(William Simpson)은 이 단락의 시작을 “신의 소 떤인, 인간을 돌보라”로 번역함으로써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왕의 의무임을 상기시킨다(L. 130-131).<sup>50</sup> 로턴은 이 표현이 나타나는 본문은 파라오가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통치해야 함을 강조한다.<sup>51</sup>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선언은 메리카레의 교훈이 귀족뿐 아니라 평민도 존중하고 평등하게 통치해야 함을 권면함에 근거가 된다(L. 20-21, 29-30, 30-31, 48-49, 61-62). 메리카레의 교훈은 창조기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생각을 보여 준다.<sup>52</sup>

요약하면, 메리카레의 교훈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표현은 귀족과 평민 모두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신의 좋은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재구성해야 하는 제1중간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헤라클레오폴리스 통치자들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지양하고 지방 세력과 백성들을 중요시하며 국가를 운영해야 했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군주에게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을 존중하는 신중한 정치와 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했다.

## 2)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제사장 학파의 비전

제사장 학파는 새로운 비전의 근원이 되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언급한다. 제사장 학파는 메소포타미아

50 Simpson, 윗글, 164.

51 Lorton, 윗글, 135.

52 또 다른 제1중간기 문서인 관 문서(Coffin Text 1130)도 창조 기사에서 인간의 평등에 관한 생각을 보여준다. Lorton, 윗글, 135.

에서 왕에게 사용하던 신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확대하여 포로기 유배 생활 가운데 약해진 야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의 의미와 역할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는 창세기 1장의 문맥과 제사장 신학의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의 첫 창조 기사(창 1:1-2:4a)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기사로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창조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매우 정교한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창조 기사는 “천지를 창조”할 때라는 평행한 구문을 창조의 시작(창 1:1)과 마지막(창 2:4a)에 배치하여 창조 기사 전체를 하나의 문학적 틀 안에 배치한다. 창세기 1장은 전체 구조를 칠 일로 구성하고, 엿새 동안 반복되는 창조 패턴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첫 육일의 구조는 전반부 삼일과 후반부 삼일이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구성한다. 처음 삼일은 혼돈한 세상에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후반부의 삼일은 공허했던 세상에 생겨난 공간을 채우는 사역이 진행된다. 이때 전반부 삼일 동안 행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창조 사역은 후반부의 삼일 동안 행할 채움의 사역에 하늘, 바다, 땅의 순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엿새 동안 여덟 가지의 창조 사역이 나타나는데, 제 삼일과 육일에는 각각 두 가지 창조 사역이 진행된다.

창세기 1장은 구조적 정교함과 함께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의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명료하고 기억하기 쉽게 묘사한다. 첫 육일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하루의 단락을 시작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이니라”고 마무리하는 반복적 관용구를 사용한다. 그 밖에도 “~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등 다양한 관용구를 반복한다. 창세기 1장은

정교한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움의 과정으로 소개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천지창조의 마지막 절정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칠일을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룩한 날로 특별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1장 26-30절에 나타난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창 1:26, 27).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며(창 1:27),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었고(창 1:28),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창 1:29)를 먹거리로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었다(1:26, 28).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며, 식물을 먹거리로 삼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는 이 본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주요 히브리어(“형상”, “모양”, “정복하다”, “다스리다”)의 의미, 첫 창조 이야기(창 1:1-2:3a),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언급되는 두 본문(창 5:1-3:9:6),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 및 사람에게 신의 형상이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안되었다. 다양한 해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1) “이성, 지성, 영성”과 같은 영적 특성, 2) “자유의지와 선과 악의 지식을 전제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인간 능력, 3) “외적인 모습”, 4) “제왕 이데올로기에서 종종 표현되는 개념으로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 역할”, 5) “하나님의 동반자”, 6) “여성과 남성

으로 구분하는 것” 등으로 제안하였다.<sup>53</sup>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 능력, 관계, 혹은 형태에 유비가 있다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다양한 의미가 중첩된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창세기 1장의 전체 문맥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이 위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생물의 먹거리와 생존 및 번성을 반영하여 실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역할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의 역할과 유사한 면이 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주권을 통해 신을 대리하여 지상에서 “신적 정의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다.<sup>54</sup> 이러한 왕실 이데올로기는 이스라엘의 다윗 신학 또는 시온 신학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조각상들을 왕국 및 정복한 지역에 세워 왕의 부재에도 왕의 현존 및 위엄을 나타낸 사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유비 관계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sup>55</sup>

---

53 W. Sibley Towner, “Clones of God: Genesis 1:26-28 and the Image of God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59 (2005), 343-355.

54 바토는 이러한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역할이 “리피트-이슈타르(Lipit-Ishtar)와 함 무라비가 각각의 법전 서문에서 잘 표현하였고, 다양한 네오-앗시리아 왕에 대한 축복에”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한다. Batto, 윗글, 130.

55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60; Edward M. Curtis, *Man as the Image of God in Genesi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arallel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4), 117-128; 미들턴,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133-136.

그러나 제사장 학파는 왕실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음에도 고대 근동의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왕적 해석을 취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헌에서 신의 형상을 왕에게 부여한 것처럼 제사장 학파도 하나님의 형상을 미래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에게 적용하였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될 왕이 영토를 회복하고, 국가를 세우고, 의롭게 통치하는 새로운 왕정 신학이 담긴 비전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 학파는 이스라엘의 왕정 신학을 복원하는 데 관심 갖지 않았다. 제사장 학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였다. 모든 사람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생명 있는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았다.

제사장 학파가 이스라엘의 왕정 신학을 재건하는 대신 모든 인류에게 제왕적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 치하라는 상황에서 볼 때, 미래에 있을 유다의 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둘째,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은 이미 실패했다. 왕들의 잘못된 지도력으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국가는 몰락했으며, 백성들은 포로기의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제사장 학파는 미래의 왕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성하고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sup>56</sup>

그러나 앞선 두 가지 이유보다도 제사장 학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그들이 그리는 창조 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스미스, 웬햄, 미들턴 등 다수의 학자가 제안하듯 P의

---

56 Batto, 윗글, 50-51.

창조 기사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주적 성소로 이해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를 중재하고 통치하는 제왕적 제사장 역할로 이해한다.<sup>57</sup> 창조 세계를 우주적 성소로 바라볼 때 P가 제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의미와 역할이 명확해질 수 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로 이해하는 제안은 다음의 세 가지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

첫째, 고대 근동의 ‘혼돈-창조 질서-신전 건축-신의 씬’ 모티프와 P의 창조 기사에 나타난 ‘혼돈-창조 질서-(우주적 성소 창조)-하나님의 안식’의 유비 관계를 생각할 때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P의 창조 기사는 옛세 동안 세상을 건축하듯 체계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묘사한 후 제 칠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묘사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주요 신(에누마 엘리쉬의 마르дук, 우가릿 신화의 바알)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고, 창조 혹은 자연의 질서를 세우고, 신전을 세운 후, 신전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제를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고대 근동 신화의 주제와 비교하면 창조 기사의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주고 창조를 마치고 성전 건축 없이 안식한다. 미들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성전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우주적 성소를 창조한 후 안식하는 것으로 제안한다.<sup>58</sup>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에 대한 사례는 이사야 66장 1-2절에서 잘 드러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사 66:1-2; 참조. 사 6:1-5). 하나님은 스스로 창

57 미들턴, 윗글, 104-113.

58 미들턴, 윗글, 104-113.

조한 하늘과 땅을 자신의 보좌와 발판으로 소개하며 세상이 하나님에게 거하고 통치하는 성소처럼 묘사한다.

둘째, 고대 근동에서 신전을 신에게 봉헌하는 의식은 종종 칠 일간 지속된 후 마지막 칠일째 신이 신전에 임재하여 안식을 취하는 점에 주목한다(참조. 에누마 엘리쉬에서 마르둑의 신전 봉헌, 우가릿 신화의 바알의 신전 봉헌). 역대하 6-7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도 칠일 동안 이루어지며 마지막 칠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면 P의 창조 기사가 칠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칠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점은 하나님이 우주적 성소를 창조하신 후 그 안에서 안식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P의 성막 건축 기사와 P의 창조 기사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미들턴은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7의 배수로 상징되는 단어, 표현, 보고 형식 등의 구조적, 주제적 병행들이 나타난다고 제안한다.<sup>59</sup> 스미스는 하나님이 안식한 칠 일에 축복함, 거룩하게 함, 안식함이라는 조합의 표현이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기 39-40장에 사용됨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sup>60</sup> 스미스의 견해처럼 모세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막을 완성한 출애굽기 39-40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창 1:1-2:4)에 반영되어 하나님이 우주적 성소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1</sup>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신이 거주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곳으로 이해한다.<sup>62</sup> 신의 형상인 왕은 대부분 신전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궁궐에 거주하며 신적 대리인으로서 영토 안에 있는 백성을 다스린다. 미

---

59 미들턴, 윗글, 107-113.

60 Smith, 윗글, 102-114.

61 윗글, 102-114.

62 미들턴, 윗글, 104.

들턴에 따르면 “왕은 사회적 조화 및 하늘에서 땅까지의 우주적 풍요의 중재자로서 대사제의 역할을 포함하여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의적 신분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합법성은 후기 중간 앗수르, 신앗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들 전체에서 상당히 강화된다.”<sup>63</sup> 왕은 제왕적 이면서 동시에 신을 대신해 사람과 교통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중재하는 제사장적 역할과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제왕적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사장 학파는 바벨론 유배자들이 바벨론의 우월한 종교, 문화, 군사력 앞에서 야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야웨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제사장 학파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우월한 하나님이며, 세상의 창조자이자 통치자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우주적 주권자라는 확신을 강화한다.<sup>64</sup>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유배자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중재하고 다스리는 제왕적 제사장 역할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다.

제사장 학파는 창세기 1장을 P의 비전의 서막에 위치시킨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의미와 역할은 창세기 족장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P는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63 윗글, 226.

64 Batto, 윗글, 49.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주적 성소에서 제왕적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상기시켰다.

#### **4. 결론: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미와 역할**

메리카레의 교훈과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에서 왕과 제사장처럼 특정한 인물에게만 한정되어 사용하던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중요한 본문이다. 두 본문은 이 표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신과 유비 관계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에 존중받을 존재임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본문들이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은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 문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표현이다. 메리카레의 교훈이 고대 이집트 제1중간기(주전 22-21세기)라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표현은 일반 대중에게 사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표현도 창세기 원역사라고 불리는 본문(창 1:26-28; 5:1-3; 9:6)에만 나타난 후 구약에 다시 사용된 사례는 없다. 이 표현의 사용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의 출현은 두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건고했던 이집트 고왕국 시대가 붕괴하고 지방의 통치자들 간의 경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재구성해야 하는 혼돈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이 혼란의 시기에 왕이 지방의 세력과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중한 정치

를 할 것을 권면한다. 이처럼 왕이 백성들을 존중해야 하는 근거로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신의 좋은 돌봄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언급한다.

창세기 1장은 국가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를 경험한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초기에 제사장 학파에 의해 최종 편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질서가 붕괴되고 거대한 바벨론 종교와 사회 앞에서 유배자들의 야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던 혼돈의 시기였다. 제사장 학파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 및 사람의 가치를 재구성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P의 선언은 낙심한 유배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유배자들이 제왕적 제사장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적 성소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한 역할의 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재구성해야 하는 혼돈의 시기에 출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란 표현은 두 본문에서 사람의 존엄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 본문에서 사람의 역할과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메리카레 교훈에서 모든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신의 좋은 돌봄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메리카레의 교훈은 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왕을 더 탁월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메리카레의 교훈이 이 표현을 사용한 목적은 사람의 신성 혹은 평등에 관심 갖기 보다 왕권 통치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왕이 혼돈의 시기에 백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권면하는 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

한다. 본문은 왕국 통치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사람 사이에 지위나 권력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창조 과정의 절정에 위치시킨 후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리는 권위이자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로 묘사한다. 제사장 학파는 창세기 1장을 P의 서두에 위치시킴으로 필연적으로 이후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P의 비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맡긴 제왕적 제사장 역할을 할 존귀한 존재로 묘사한다(참조. 출 19:6; 벤전 2:9). P는 바빌론 유배 경험을 통해 야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신성한 명령을 준수하여 창조 비전을 완성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한다.

## 참고문헌

- 고든 웬햄, 『창세기1-15』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Gordon John Wenham, *Genesis 1-15* (WBC 1;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 브루스 K. 월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Bruce K. Waltke, Cath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 박기형,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의 사회경제적 정체”, 『구약논단』 30(1) (2010), 75-110.
- 이동규,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와 영혼 이해”, 『중앙사론』 31 (2010), 197-227.
- 월터 브루거만, 『창세기』 (강성열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ox Press, 1982).
-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 『고대 이집트의 역사: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까지 1』

www.kci.go.kr

- (김태경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20). 원제 James Henry Breasted, *A History of Egypt 1: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ersian Conquest* (Reprint ed.; Simon Publications, 2001).
- 존 H. 월튼,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역사적 아담의 기원과 정체에 관한 논쟁』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원제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at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0).
- 질 미들마스, 『이스라엘의 무성전 시대』 (홍성혁 옮김), (서울: CLC, 2018). 원제 Jill A. Middlemas, *The Templeless Age: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of the "Exi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하계상, “창세기 5장 1-3절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1(4) (2015), 40-73.
- J. 리처드 미들턴, 『해방의 형상: 창세기 1장의 이마고 데이(Imago Dei)』 (성기문 옮김), (서울: SFC, 2009). 원제 J. Richard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5).
- Atwell, James E., “An Egyptian Source for Genesis 1”,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1 (2000), 441-477.
- Bard, Kathryn A., *An Introduction to the Archaeology of Ancient Egypt* (2nd ed., Chichester,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5).
- Batto, Bernard F., *In the Beginning: Essays on Creation Motif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Bibl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3).
- Boorer, Suzanne, *The Vision of the Priestly Narrative: Its Genre and Hermeneutics of Time* (Atlanta: SBL Press, 2016).
- Currid, John D., “An Examination of the Egyptian Background of the Genesis Cosmogony”, *Biblische Zeitschrift* 35 (1991), 18-40.
- Curtis, Edward M., “Image of God (OT)”, David N. Freedman(ed.),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381-389.
- \_\_\_\_\_, *Man as the Image of God in Genesi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arallel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4).
- Demidchik, Arkadiy E., “The Sixth Heracleopolitan King Merikare Khety”, *Journal of Egyptian History* 9 (2016), 97-120.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_\_\_\_\_,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T* 21, 151-167.

- Hepner, Gershom, "Israelites Should Conquer Israel: The Hidden Polemic of the First Creation Narrative", *Revue Biblique* 113 (2006), 161-180.
- Hollo, William W., Simpson, William Kelly, *The Ancient Near East: A History* (2nd ed.;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8).
- Hoffmeier, J. K.,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15 (1983), 39-49.
- Jančovič, Jozef, "Imago Dei: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appraisal", *ET-Studies* 10 (2019), 183-206.
- Johnston, Gordon H., "Genesis 1 and Ancient Egyptian Creation Myths", *Bibliotheca Sacra* 165 (2008), 178-194.
- Lichtheim, Miria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 Book of Readings, Volume 1: The Old and Middle Kingdo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Lorton, David, "God's Beneficent Creation: Coffin Texts Spell 1130,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and the Great Hymn to the Aton",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20 (1993), 125-155.
-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Redford, Donald B.,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Shaw, Ian and Bloxam, Elizabe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Egypt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Shupak, Nili, "Straightening the Crooked Stick: The Boundaries of Education in the Ancient Egyptian Wisdom Tradition", *MAARAV* 21.1-2 (2014), 251-270.
- Simpson, William Kelly, ed., *An Anthology of Stories, Instructions, Stelae, Autobiographies, and Poetry* (3rd ed.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Smith, Mark S., *The Priestly Vision of Genesis 1* (Minneapolis, MN: Fortress, 2010).
- Sommer, Benjamin D., *A Prophet Reads Scripture: Allusion in Isaiah 40-66*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Strudwick, Nigel, "The Old Kingdom and First Intermediate Period", Ian Shaw and Elizabeth Bloxam eds., *The Oxford Handbook of Egypt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619-637.
- Towner, W. Sibley, "Clones of God: Genesis 1:26-28 and the Image of God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59 (2005), 341-356.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Wilson, John A., *The Culture of Ancient Egyp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 “The Instruction for King Meri-Ka-Re”,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414-418.
- Zhdanov, Vladimir V., “Study on the Question of Human Nature in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575 (2021), 144-148.

검색어

하나님의 형상, 메리카레의 교훈, 창세기, 제사장, 창조

[ ABSTRACT ]

## Human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Genesis 1 and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in Ancient Egypt

Jun Kim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Genesis 1 with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in Egypt, which records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in the “image of god” approximately 1,500 years earl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god)” as expressed in the two text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gave rise to this concept.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and Genesis 1 are important texts that apply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 which was used only for certain figures such as kings in the ancient Near East — to all people. At the same time, these two texts are unusual texts because this expression is used only in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in Egypt, and only in the pre-history of Genesis, and then not again in the Old Testament.

The emergence of this expression can be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context of the time when the two texts were written.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is set in a chaotic period when the solid Old Kingdom of Egypt collapsed and a new order had to be reconstructed amid competition among local rulers.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advises that the king should consider local power and people important and

www.kci.go.kr

conduct prudent politics during this chaotic time. As such, the basis for the king's respect for people is that all peopl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are precious beings who receive god's good care. However, the teaching of Merikare does not claim that all humans are equal or divine. Rather, kings are created to be more special. Since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focuses on the stability of the kingdom's rule, it does not mention the role of human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the created world.

Genesis 1 is understood to have been edited by the Priestly school during the exile or early post-exile period. This was a time of chaos when traditional religious values and order collapsed, the exiles' faith in YHWH weakened in the face of the great Babylonian religion and society, and they questioned the value of their own existence. The Priestly school reconstructs the values of Israel's religion and people through Genesis 1, which presents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God who formulates and carries ou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lan, and roles of people created in God's image. Genesis 1 does not mention differences in status or power among people. All people are equal and dignified. Genesis 1 places people at the zenith of the creation process and then portrays them 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rule over all living creatures and the earth as God's representatives. P's vision portrays all people created in God's image as noble beings who will serve as kingly priests entrusted by God. P invites the Israelites, whose faith in YHWH had been weakened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Babylonian exile, to strengthen their faith in the Almighty God, and to move toward the goal of completing the vision of creation by following the divine commandments that God had entrusted to humans.

key words

God's image, the Instruction for Merikare, Genesis, Priest, Creation

투고일: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http://www.kci.go.kr)